

목포보호관찰소

○ 매체 : 로이슈(2024. 7. 12.)

○ 제목 : 목포보호관찰소 쓰레기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가정 환경개선

목포보호관찰소, 쓰레기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가정 환경 개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최근 2일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취약계층(알코올 질환, 고령세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전 기간전점검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암읍의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영암읍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쓰레기에서 생활하여 화재위험이 있고, 악취가 발생하여 고민하던 중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소식을 듣고 신청했는데, 최선을 다해준 봉사단의 도움이 컸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목포보호관찰소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해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